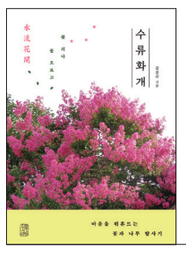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10~4/1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육조단경	청화 역주	광륜출판사	6	불교상용의범	해사 편찬	운주사
2	영화스님의 선명상	영화 스님	운주사	7	신심명강설(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진우스님	불교신문사
3	어싱: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8	중관학 특강:색즉시공의 논리	김성철	오타쿠
4	한글아함경*재개정판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9	불일 스님의 해탈노래(참나를 찾아서 가는 길)	서홍 불일 지음	도반
5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10	시와 함께–붓다의 대화(시와 함께 모아 엮음)	전재성 역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책세상

아름다운 산천초목 이야기들 담아내다



수류화개
김봉규 지음
수류책방
1만6800원

사찰 매화부터 은행나무까지
산하 물들이는 초목의 면면들
문화 기자였던 저자가 풀어내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장성 백양사 홍매. 고불매로 잘 알려져 있다.

해마다 봄소식을 알리는 대표적 봄꽃은 단연 매화다. 선비의 고결한 인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고매(古梅)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사찰에 많다.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 홍매화부터, 승주 선암사 고매(선암매), 양산 통도사 홍매(자장매), 장성 백양사 홍매(고불매)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화엄사 각황전 앞의 홍매는 많은 매화 애호가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는다. 나무 모양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오래된 목조 건물과 어우러져 쉽게 접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선비들이 좋아했던 만큼 매화를 예찬한 조선 유학자들도 많다. 매화를 지독히도 좋아해 107수에 이르는 매화시를 남긴 퇴계 이황은 운명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매화분에 물을 주도록 하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이렇듯 계절에 맞춰 꽃을 피워내고 단풍을 들이는 초목들은 한반도의 역사 안에서 문화가 됐고, 이야기가 됐다. 우리 예술과 전통문화를 직접 찾아가 알리는 집필 활동을 이어온 김봉규 전 영남일보 기자가 발간한 〈수류화개〉는 전국의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탐사한 이야기들이 담겨있다.

문화 전문 베테랑 기자로 활동했던 저자는 '물 흐르고 꽃이 피는 자연을 가까이하지 않고는 진정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다'라는 신념으로 전국의 산하를 누비며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직접 찾아가 소개하고, 초목 뒤에 얽힌 문화와 역사 이야기를 들려준다.

책 제목인 '수류화개(水流花開)'는 북송의 시인 소동파가 부처님 제자를 칭송한 시 〈십팔대아라한송〉에 나오는 구절로, 보통 '공산무인(空山無人)'과 짝을 이뤄 쓰인다. '사람 없는 텅 빈 산에 물 흐르고 꽃이 피네'라는 뜻을 담은 이 글귀는 고금으로 전해지며 많은 이들이 애호한다. 추사 김정희는 서예 작품으로 남겼고, 화가 김홍도와 최북은 이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화제(畵題)로 남기기도 했다. 또한 이 글귀를 자주 사용한 법정 스님은 자신의 거처에 '수류화개실'이라는 당호를 달아놓았다.

이 글귀를 특별히 좋아한 저자는 물 흐르고 꽃이 피는 자연을 가까이해야만 물질문명에 휩쓸리지 않고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다고 설파한다. 그리고 2022년 초부터 1년 동안 직접 보고 싶은 꽃과 나무를 찾아 전국을 누볐다. 저자는 계절마다 제멋을 뽐내는 매화, 진달래, 해당화, 연꽃, 이팝나무, 배롱나무, 은행나무, 자작나무 등을 찾아가 그 풍광과 감흥을 전하며 초목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보는 순간 온 산이 사람의 혼을 빼앗을 듯 불타오르는 천주산 진달래 군락지부터 땅 위에서 노란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듯 탄성이 절로 나오는 반계리 은행나무까지. 저자의 발길을 따라 울긋불긋 산하를 물들이는 꽃과 나무를 접하다 보면 자연스레 그곳에 찾아가고픈 충동에 빠져든다. 또한 단순히 아름다운 초목을 소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들려주는 꽃과 나무에 대한 다양한 생태학 정보와 옛이야기를 통해 흥미로운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도 함께 배울 수 있다.

"팔만대장경 중에는 벚나무로 만들어진 것들이 많은데, 우리 나라에 언제부터 벚나무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분명하지 않다. 〈중략〉 화엄사 계곡 일대에는 올벚나무가 많은데, 벽암 선사가 북벌을 꿈꿨던 효종의 뜻을 받들어 활, 창, 칼자루 등 무기를 만들기 위한 목재 용도로 벚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 59쪽 '벚꽃–하동 쌍계사 십리 벚꽃터널'

"연꽃은 선비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았다. 연꽃을 찬미한 글로 북송 유학자 주돈이의 '애련설(愛蓮說)'이 유명하다. 국화는 '은일'로, 연꽃은 '군자로', 모란은 '부귀로' 특징지으면서 자신은 연꽃을 사랑한다고 읊조린다."

– 119쪽 '연꽃–700년 전 씨앗이 부활한 아라홍련'

30여 년 동안 문화부 전문 기자로 활동한 저자는 그동안 우리 예술과 전통문화를 직접 찾아가 꼼꼼히 살핀 후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한 집필 활동을 이어왔다. 전작 〈절집의 미학〉은 산사를 오르며 만나는 소소하면서도 놀라운 이야기들을 묶어 불교출판문화상 보덕전법상을 수상했다. 신라 명필의 글씨부터 조선 왕의 친필까지 궁궐과 사찰, 서원과 정자 35곳에 걸린 현판을 소개한 〈현판기행〉 역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전국 종가 43곳에서 전해지는 전통 음식과 술을 소개한 〈요리책 쓰는 선비, 술 빚는 사대부〉도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의 추천을 받을 정도로 큰 관심을 얻었다. 현재는 삶과 예술에 대한 글을 쓰는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세상은 거대한 도서관 산하대지는 최고의 경전

무정설법, 자연이 쓴 경전을 읽다
최성현 지음
판미동
1만7000원

중국 북송의 시인 소동파는 여산 동림사에서 임제종 황룡파의 개조 황룡 혜남의 법을 이은 상총 선사와 함께 선학에 대해 토론했다. 밤을 새워가며 토론을 이어가던 중 상총 선사가 소동파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찌해 무정설법(無情說法)은 듣지 않고 유정설법(有情說法)만 들으려 하는가."

상총 선사의 따끔한 질문에 소동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무정설법'은 곧 소동파의 화두가 됐다. 아침이 돼 동림사를 나온 소동파는 여산 호계의 폭포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어 오도송을 읊었다.

시냇물 소리가 곧 오묘한 법문이니(溪聲便是廣長舌)
산의 경치는 어찌 청정법신 아니겠는가(山色豈非淸淨身)
밤새 설했던 이 팔만사천 게송들을(夜來八萬四千偈)
다른 날 어떻게 다른 이에게 들려줄 수 있으리(他日如何擧似人)

유정설법은 중생을 위해 법사나 붓다가 설한 팔만대장경이고, 무정설법은 산하대지, 즉 자연이 전하는 법문이다. 상총 선사가 무정설법을 들을 줄 아는 경지를 소동파에게 이야기한 것은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서로 관계를 갖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치를 보이고 있어서다.

〈열반경〉에서 부처님은 "일체중생(一切衆生)이 개유불성(皆有佛性)이요, 유정무정(有情無情)이 실개성불(悉皆成佛)이라"고 설하고 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으니 유정과 무정의 모든 것이 부처라는 말이다. 어찌보면 이 같은 불교의 사상은 기후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대사회에 깊은 울림을 준다. 산하대지가 전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 인간은 모든 유무정의 존재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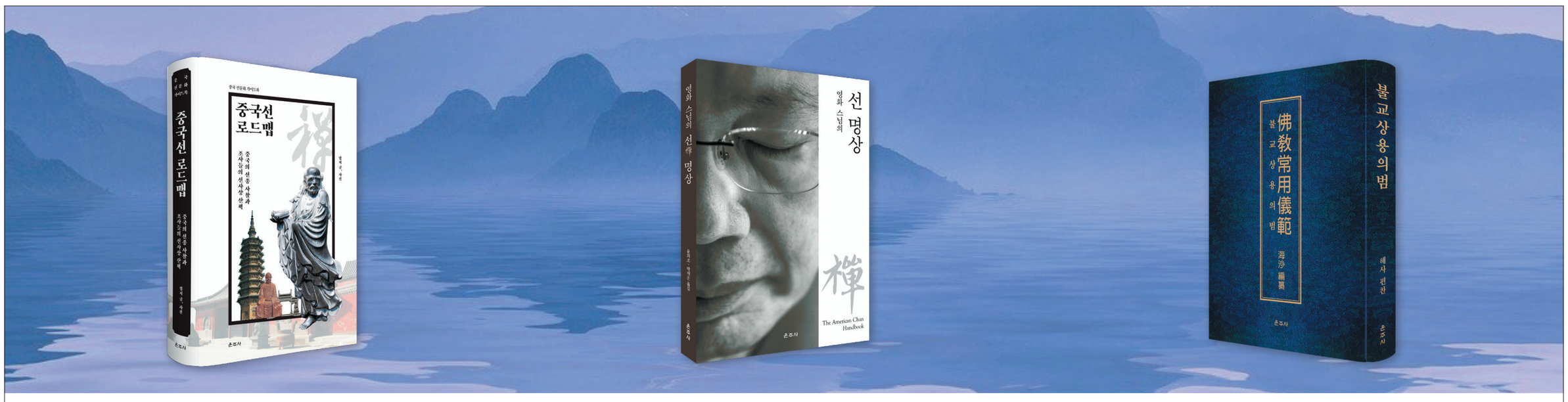
20년 동안 숲속에서 살아온 농부 작가 최성현이 자연에서 배운 가르침들을 일상의 언어로 전하는 에세이 〈무정설법, 자연이 쓴 경전을 읽다〉를 출간했다.

저자는 자연의 가르침을 따르며 생명을 해치지 않고 농사짓는 자연농법을 30년 넘게 실천해 왔다. 자연농법이란 관행농법이나 유기농법과는 달리, 논밭을 갈지 않고, 농약으로 벌레를 죽이지 않으며, 비료도 주지 않고 제초도 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 짓는 농사법이다. 이 책에는 오랜 기간 자연의 순리를 체득하여 살아온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나날의 기록이 꾸밈없이 담겨 있다. 자연에서 얻은 지혜뿐 아니라, 인간 중심에서 자연 중심으로의 생태주의적 관점 전환, 이 시대에 꼭 새겨들어야 할 인류와 자연의 공존에 대한 메시지까지 모두 담았다.

저자는 아메리카 원주민 텐돈 수족의 '서 있는 곰'의 말을 빌려 말한다. "세상은 거대한 도서관이며, 돌·나뭇잎·풀·실개천 등은 경전이다."

이처럼 책의 곳곳에는 자연의 말씀들이 보물처럼 담겼다. 손안의 씨앗에게서 "너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는 희망의 말씀을 듣는가 하면, 한겨울에 펑펑 내리는 함박눈을 보며 "괜찮다! 괜찮다"는 위로의 말씀을 듣는다. '다 내주어도 돌려주는' 하늘의 설법과 '받아들여 살려내는' 땅의 설법을 들으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를 새롭게 발견하고, '세상의 장벽을 쉬지 않고 지우는' 풀의 설법과 '바람이 불면 맞서지 않다가도 멈추면 제 길을 가는' 나무의 설법을 들으며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된다.

신중일 기자



중국의 선종 사찰과 조사들의 선사상을 찾아서!
중국선 로드맵
선종 초조 달마대사부터 허운선사에 이르기까지 역대 조사들이 머물던 사찰의 역사와 현황, 선사상을 정리해 놓은, 한권으로 만나는 '중국선종사'이다.
법지 글, 사진/신국판/양장/496쪽/값 33,000원

혼자 명상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입문서!
영화 스님의 선 명상
초심자를 위해 기초적인 앉는 자세부터 경험 있는 수행자를 위한 기본 마음가짐과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명상 안내서이자 지침서'이다.
영화 스님 지음, 윤희조, 박재은 옮김/신국판변형/무선/244쪽/값 15,000원

사찰에서 일상적으로 설행하는 재 의식 총망라!
불교상용의범
조석예불과 사시마지, 각단 예경의식, 천도재나 각종 재회 시 설행되는 제반의식문, 각단에 올리는 불공의식문, 각종 시식과 영반 등 누구나 편리하게 집전할 수 있도록 편찬!
해사 편찬/사륙배판/양장/696쪽/값 5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